

떠나는 날

“아 그 뒤꼍에 바윗돌이 있는 데이세요? 떡맨드라미가 펍 탐스럽 드면요.”

“그 바윗돌이 터주랍니다. 호호…….”

하고 얼쑹덜쑹 엮은 얼굴에 걸맞지 않는 젊고 아리따운 음성으로 웃는다.

“내년엔 어쨌든 저택하구 사귀어 맨드라미 씨좀 줍시사구 마음먹었었는데.”

“아아니 진작 그러시지.”

“그래두.”

“너무 얄전하셔서. 온.”

하고 눈흘기는 시늉을 한다.

한때는 이 ‘얄전이’가 ‘쌀쌀이’로 평판이 사뭇 나빴다.

손바닥만한 촌부락, 이뿐이네 집에서 볶은 콩알이 그날로 쌍가마네 집 기적방에서 구른다.

마을 다니지 않는 것이 오히려 흥이었다.

흥이라면 숙경이의 새하얀 살결부터가 부족증(肺病) 앓는 것 같았

고, 팔이 드러난 블라우스도 좀 난잡스럽다고들 하였다.

“신여성은 그런 건가? 밤낮 책만 들여다보고 있다지?”

“색시를 얻어 온 게 아니구 걱정거리를 짊어졌어.”

이렇게들 떠들었다.

결혼 후 석 달이 못 가서 입덧이 나고부터 흉은 더 퍼졌다.

남달리 아이를 험히 섰던 것이다.

“봉의 알이나 품나 뭐?”

하고 콧살을 찡기면

“뉘 아니래.”

하며 입을 삐죽였다.

그렇게 험하게 선 아이를 돌 바라볼 때 잃은 것도 역시 흉이었다.

“원 너무 유난스레 기르더니.”

“봉의 알이 아니구?”

하고들 웃었다.

집안에 들어앉아 바깥 소문을 들은 적은 없으나 숙경은 이 마을이 지긋지긋하도록 싫었다.

그러는 중에 둘째 아이는 더욱 유난하게 험히 섰다.

태봉네가 드나들게 된 것은 입덧이 심해질 무렵부터다.

“별 맛은 없어두 남의 위엔 이런 것두 좋답니다.”

밤을 이어 쭈었다는 도토리묵을 행주치마 밑에 가리고 가지고 오기도 하고, 젓국 양념 김치에 머리를 돌리는 것을 보고 총각 김치를 얻어다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첫아이만큼 흉은 퍼지지 않았다. 태봉네를 따라 동리 사람들이 더러 드나들게 되고부터 오히려 부하 직원의 아낙들만이 인사치레로 올 때보다 흉이 꺼졌다.

찬바람이 돈다고들 하던 사택집 색시가 뜻밖에 상냥하고 인정스럽다고들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네들은 이번 전근 발령을 찍이나 섭섭히들 여겼다.

“정들자 이별이라구.”

“섭섭해서 온.”

하며 모밀 국수를 놀러 온다 두부를 만들어 온다 인절미를 쳐 온다 하였다.

바윗집 곰보 마누라는 가을에 맨드라미 씨를 받으면 꼭 부쳐 주마고 가는 곳 주소까지 적어 달랬다.

숙경이는 지나친 호의 속에서 짐 쌀 겨를도 없이 어리둥절만 했다. 아이도 없는 단 두 식구—— 갖다 주는 음식들은 그대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다.

‘사택집’은 이삿집이라기보다 잔칫집같이 풍성풍성한 분위기였다.

“흠뻑두 아닌데 물 맑은 고장에서 흠이불 걸은 건 빨아 가지구 가서.”

태봉네가 억지로 호청을 뜯어 개울로 나가고, 사무실 소사 박 서방은 제 일같이 탄탄하게 짐짝을 꾸려 맨 후, 채마밭에 나가서 캐기엔 아직 이른 감자를 열심히 캐어 가마니에 넣어 뭉쳤다.

C역에서 버스로 사십 리 I강을 굽어보는 포구, 생산물은 흔하나 포구니만큼 인심이 후치 못하고 제일 교통이 불편하다. 한방의(漢方醫) 외에 자가 중독(自家中毒)을 감질로 돌리는 그런 공의(公醫)가 한 사람 있을 따름인 촌이다. 첫아이를 잃고부터 뜨고 싶은 마음에 은근히 전근 운동을 해 왔던 차였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도 고대했던 S 시에의 전근 발령을 받고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호의를 입고 보니, 이 영전이 그리 대수롭지 않고 오히려 이 초초한 포구에 미련다운 것도 가져지는 것이었다.

초여름 긴 해가 어느덧 저물어 박 서방이 램프에 불을 켜 들고 들어왔다.

책상도 꾸려 싼 뒤라 들창 틈마루에 그것을 놓았는데, 열어제친 창으로 어둠 속에 묻혀 가는 강이 건너다보였다.

건너다보고 있는 눈에 축축히 번져 들 듯한 그윽한 그런 보랏빛 어둠이다.

잔광(殘光)을 머금은 강물에서는 고요히 물김이 서려 오르고, 동녘 하늘에 별빛이 제법 또렷해 갔다.

저녁부터 일기 시작한 가는 바람이 불어들어선지 램프의 심지가 펄렁거린다.

숙경이는 창문을 닫고 램프를 들여다보았다. 심지가 고르게 잘려지지 않았는지 널름거리는 불꽃은 그을음이 되어 호야 속을 맴돌아 나온다.

그날 밤 아이가 그 가냘픈 힘을 다하여 덮어 누르는 그 무서운 죽음과 싸우는 것을 어찌할 수 없이 보고만 있어야 되던 그날 밤, 역시 램프가 그 아이의 단말마의 입김처럼 검은 그을음을 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숙경이는 떨리는 손으로 얼른 그 불을 꺼 버렸다.

먼 웃음 소리가 들린다. 사무실에서 송별회가 벌어진 모양이다.

쌍가마네에서 쳐 온 인절미를 담아 보낸 태봉네는 아직 집에서 돌아오지 않고, 천장 위 쥐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렸다.

삼년 전 이 집에서 그 때껏 독신 생활을 하던 남편과 결혼을 하여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상기되었다.

축하흔지 무엇인지 그날 밤도 사무실이 떠들썩하고, 텅 빈 사택에선 역시 쥐소리가 요란했다.

신혼의 아내에게 담담하다는 허세를 보이고 싶어선지 남편은 좀처럼 들어오지 않아, 숙경은 무료한 대로 램프불만 응시하고 있었다. 서울서 태어나서 자란 그녀에게는 그 들레를 둘러싸 앉은 가족들의 단란이라든가 그러한 추억이 있을 리 없었다. 훗훗한 방에 램프불은 더욱 외롭기만 하였다.

부모님이 정해 준 아직 스스럼이 가지지 않는 남편이 이때처럼 그리워진 때는 없었다.

애정이란 결국 그러한 것——한쪽이 남자고 또 한쪽이 여자라는 제일 단순하고 원시적(原始的)인 맺음인 것일지도 모른다고, 쓴웃음을 지은 것은 훨씬 나중에 가서다.

“사모님 불이 꺼졌습니까?”

박 서방의 소리다.

“램프 그을음이 몹시 나세요.”

“네? 그럼 곧 다른 걸 갖다 드리죠.”

박 서방은 이내 사무실편으로 나가는 모양이다.

사무실 웃음 소리는 더욱 요란해 갔다.

늦은 달이 떠올랐는지 동창이 흰하다.

유리문 너머로 흰 안개의 띠를 띤 산마루의 윤곽이 보이고, 이쪽 숲 위에 아롱거리는 반딧불이 신비스러웠다.

척 척 쉬——쉬——

언덕 밑을 노젓는 소리가 뱃사람의 뱃노래에 얽혀 들려온다.

낭떠러지 위에 커다랗게 지은 사택에다 넓은 울안에 몇 개의 고총(古塚)까지 있어 터가 세어서 붙은 것이 있다고 들어 온 집이다.

아이가 죽은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들 하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밤 그녀는 누구인지 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울음 소리는 하나가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성이 들리는가 하면 기막힌 듯이 흑흑 느껴 우는 소리도 섞였다.

남편은 공포에 웅조려진 아내의 몸을 안고

“바보 곡성이 다 뭐야! 저건 뱃사람의 뱃노래야. 그리구 흑흑하는 것은 노가 물 치는 소리구.”

하고 풀어 주었다.

숙경이도 억지로 그 불가해한 소리를 그렇게 해석은 해 온 것이었으나, 역시 요번 아이는 이 집에서 낳기 싫다고 굳이 양탈을 하다시피 한 것이었다.

달이 차차 높아지자 안개가 개이고, 굽이 흐르는 물과 산모퉁이를 도는 띠처럼 널려진 자동차 길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얼마나 그 산너머를 그리고 살던 세월이었으랴? 아이가 죽은 것도 그 산이 살 길을 가리운 것만 같아 슬픔보다도 분함이 치밀어 올라

“사택집 색신 독하기두 해. 어린걸 잃구두 눈물 한 점 안 흘려.”

이런 또 한 가지 흥을 뒤집어쓰곤 하였더니 ——

“애기 어머니 어둔 데서 뭘 허셔.”

바깥이 떠들썩하더니 태봉네와 동리 여인들이 몰려들어왔다.

“불두 켜잖구.”

하고 성냥을 더듬어 이내 램프에 갖다 댄다. 불은 다시 프르륵거리기 시작했다.

“앵두가 글썩 제법 먹게 됐드면요.”

누구인지 끼고 왔던 다래끼를 내민다. 펄럭거리는 침침한 램프불 아래 둘러앉은 그들의 모습은 껍이나 다정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정들면 고향이지 이네들허구 이렇게 여기서 늙어두…….’

임신 오 개월에 들어선 젊은 임부(妊婦)는 그런 감상(感想)을 안기도 한다.

웃으면 푸르죽죽한 잇몸이 콧구멍 밑까지 드러나는 쌍가마네, 민망스럽도록 주근깨가 닥지닥지 붙은 김 서방네, 붉은 눈알이 불쑥 솟은 만경이네 ——

그 험하고 추악한 인상으로 말미암아 더욱 잊혀지지 않을 사람들인 것 같았다. 같은 이유로 염오를 느끼곤 했던 그들이었으나 ——

“내년 파일엔 뱃놀이 오셔요.”

김 서방네가 말을 건넨다.

“올 수 있으면.”

“오시면 되는 게지 뭐.”

김 서방네가 되풀이했다.

멀쩡한 곁말일 따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역시 해롭지는 않다. 사람이란 더욱이 여자란 자기의 끄는 힘에 대한 반응(反應)이 빠른 사람에겐 다소나마 애정이 가는 것인가?

숙경이는 코허리가 짙뚱한 주근깨투성이의 김 서방네에게 무척 친밀감을 느꼈다.

아부로 듣기엔 그에 대한 선입주가 너무나 소박하고 단순하였다.

“여보——여보 좀 나오우.”

남편의 취성이 들렸다.

바깥이 왁자지껄한 것으로 보아 언제나처럼 사택에서 이차회가 벌어질 모양이다.

—— 잔 하나 남기지 않고 꾸러 버렸는데 ——

그러나 떠들며 들어온 남편은 술냄새를 풍기며

“황 선생댁 일행이 지금 버스루 도착하셨어. 어서 방 하날 치워 드려요.”

“황 선생?”

“우리 후임으로 오신!”

숙경이네가 떠난 후 오겠다고 하던 후임자가 예정보다 빨리 도착한 것이었다.

떠나는 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맑았다.

짐은 이미 실려지기만 기다리고 있었고 아침 식사는 개성집에서 준비한다 하여 소쇄를 마치고 나니 할 일이 없었다.

그는 거기 고충이 있다고만 들어온 정원 한구석에 솟아 있는 전나무 밑 바위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앞을 내려다보았다.

강바람이 일어선 강변에 늘어선 높은 백양나무가 하늘을 쓰는 듯이 흔들린다.

사공을 기다리는 나룻가 사람들의 그림자가 물 속에까지 뻗쳐져 보드라운 비단같이 하늘거리는 물결 위에서 떨어졌다.

언제나 보는 아침 풍경이었다.

—— 나는 착한 아이랍니다 ——

노랫소리라기보다 고향에 가까운 아이의 소리가 들린다. 후임자의 어린 아들인 모양이다.

와 와 왕 이이잉 ——

이번엔 질자배기를 깨는 듯한 울음 소리다.

부엌 쪽이 술렁술렁하다.

박 서방이 부엌 앞에서 탁탁 장작을 패고 있다.

숙경이네에게 대하던 그대로의 열성과 충실을 가지고 ——

숙경이는 끓어오르려는 야릇한 감정을 누르고 일어섰다.

버선등이 문히도록 깊은 풀길이다. 반디꽃이 이슬을 머금고 별같이 반짝였다.

길 저쪽을 누구인지 다래끼를 끼고 이리로 오고 있다. 바윗집 곰보마누라였다.

“오늘 떠나신대죠?”

“네.”

“날씨가 좋아 다행이세요”

“네.”

“그럼 나중에 자동차부에 나가 뵙죠.”

바윗집 마누라는 빈 한쪽 손을 동그라미를 그럴 만큼이나 흔들며 사택 부엌 쪽으로 떨어져 갔다. 이윽고 새로 온 황씨 부인의 남자같이 호탕한 소리가 울려 나왔다.

“웬 아육은 이렇게 많이 가주 오셨수?”

“기왕 숨아 버릴 걸요 뭐.”

주는 쪽이 받는 쪽보다 더 고마워하고 송구해 하는 어조이다.

숙경이는 어깨를 떨어뜨리고 발길에 걸리는 돌멩이를 멀리 차 던졌다.

“그까짓! 그까짓!”

무엇에 틀린 아이처럼 입가가 썰룩거렸다.

집안으로 들어가니 박 서방이 장도리를 가지고 벽에 박혔던 화병
걸이 못을 빼고 있었다.

“?”

“애기들이 위험하다구 사모님이 빼라셔서요.”

“그래 애기들이 많으시니깐.”

태연하게 대꾸는 하였으나 숙경이의 가슴은 끓는 물이나 마신 듯
쓰러 했다.

“박 서 바아——〇”

또 그 큰 황 씨 부인의 음성이 울렸다. 박 서방이 당황하게 그리로
달려간 후 얼마 되지 않아 부엌 쪽에서

“왓하 하…….”

웃음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다.

숙경이는 까닭 모르는 모욕을 느껴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
웃음 소리가 자기에 대한 조소인 것만 같다. 무엇보다도 가슴이 내려
앉은 것은 박 서방의 큰 웃음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녀는
이 삼년을 통하여 박 서방의 큰 웃음 소리라고는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무슨 배신(背信)이나 당한 것 같은 노여움에 얼굴이 확 달
아올랐다.

차가 기왓골 고개를 넘고서부터 그 때까지 눈 아래 깔리던 강줄기
가 자취를 감췄다. 그 지켜워 하던 포구는 이미 산에 가리워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숙경이는 시원하다기보다 추방이나 당한 것 같은 서글픔이 스미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자동차부에 나왔던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롱거린다. 둥그런 얼굴에 머리가 벗어 올라간 황색을 선두로 늘어섰던 직원들——숙경이는 마치 직장에서 귀순해 버린 옛 부하를 보는 패장 같은 패배감과 굴욕을 사무치게 느꼈다. 거자 일일 소(去者 日日蔬)——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얼굴이 찌그러지려는 것이 자기도 느껴졌다.

초초한 포구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애정이 그런 감개와 질투를 가져오도록 자기에게 있어 절실한 것이었던가? 숙경이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가슴은 자꾸 부풀어 오기만 하였다.

“으 흐…….”

오열이 터지려 했다. 그는 소스라쳐 이빨에 힘을 주어 손수건을 물었다.

“뭘 그리 골똘히 생각허우? 몸 상허려구.”

남편이 입을 가만히 귀에 갖다 대었다.

“그까짓 없어진 것 생각험 뭘 해.”

남편은 탄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 그렇기도 해. 애기——죽음——

숙경이의 뺨을 억눌렀던 눈물이 굴러 내렸다.

울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찾은 것 같은 일종의 안도감이 몽쳤던 가슴을 훌훌히 풀었다.

“몰라.”

아이처럼 고개를 내젓던 그는 갑자기 안색을 갈고 남편의 팔을 움켜쥐었다.

차가 험한 돌길을 구를 때의 충격이 배에 와 마친 다음 순간, 뺨속 한구석을 무엇이 떠받치더니 그것은 저고리 앞섶이 들먹하도록 몸짓을 한 번 하고 도로 주저앉았다.

새생명의 최초의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왜 그래?”

“아니예요.”

남편의 팔에서 떨어지며 숙경은 울던 얼굴로 웃어 보였다.

“우리 화단엔 맨드라미 같은 축스런 꽃 심기 싫지요?”

이런 똥판지 같은 말을 하고 그녀는 쓰러지듯이 쿠션에 기대 앉았다. 갑자기 심한 피로(疲勞)가 온 것 같았다.

(1952. 3.)